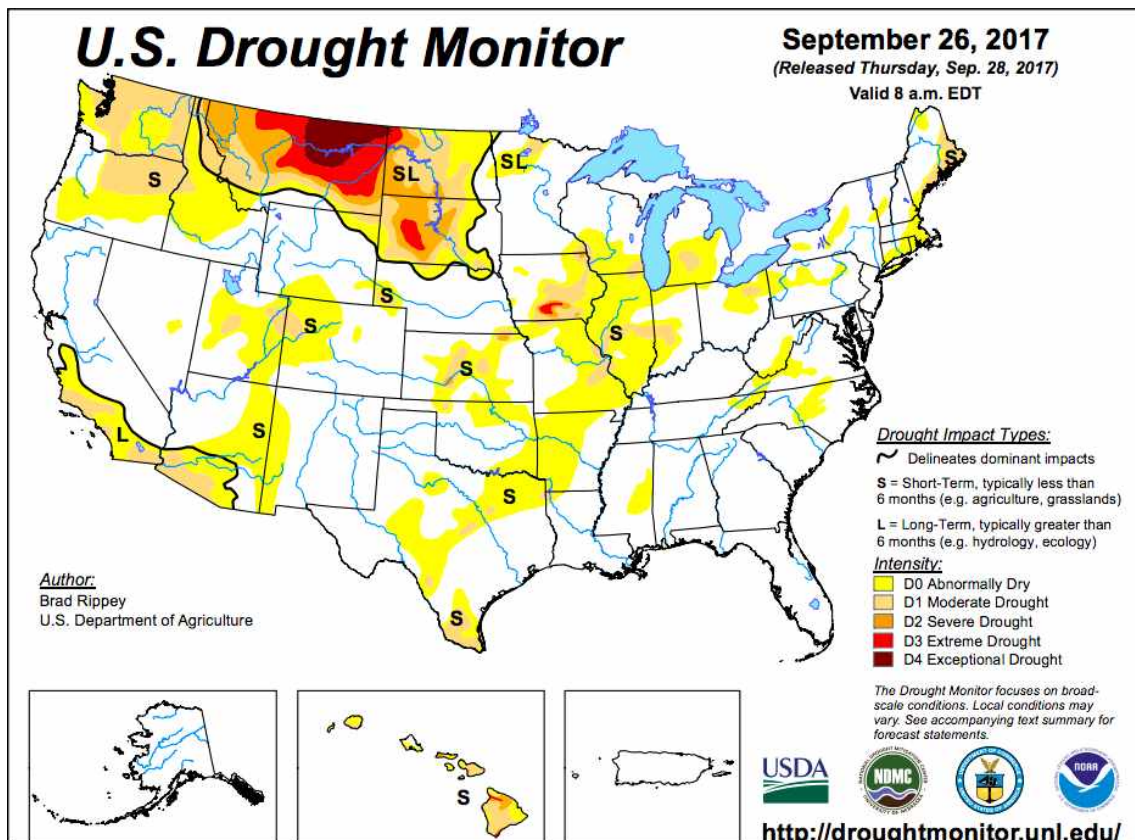


10월 3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(Volume 104, No. 40)

□ 미국 기후 현황(9/24~9/30)

Puerto Rico, U.S. Virgin Islands 등에서는 덥고 습한 날씨 속에서 허리케인 Irma와 Maria가 남기고 간 피해 현장 복구 작업이 진행되었다. Puerto Rico에서는 지난 1928년 이후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으로 기록된 Maria의 영향으로 전기 공급이 중단되고 식수 등이 부족한 상태이다. 미 대륙 전역은 대체적으로 맑은 날씨를 보였다. 주 초반에는 중서부와 북동부에서는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고, 서부 전역은 대체적으로 선선한 날씨를 보였다. 반대로 주 후반으로 가면서는 서부에서는 평년보다 더운 날씨를 보인 반면 동부에서는 계절적인 영향으로 서늘한 날씨를 보였다. 오대호 및 뉴 잉글랜드 인근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10°F 이상 높았고, 내륙산간의 서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5~10°F 정도 낮았다. 로키산맥 남부에서부터 중서부의 북부지역까지는 소나기가 몇 차례 내렸다. 남부와 중부의 지난 한 주간 평균 강우량은 2인치 내외였고, 텍사스에서는 곳에 따라 4-8인치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려 침수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. 태평양 연안 북서부 일대와 내륙산간, 북동부 일대에서도 한두 차례 소나기가 내렸다.



## □ 농업 현황 요약(9/25~10/01)

로키산맥 남부, 중부평원, 미시시피강 상류 지역에서는 평년에 비해 조금 많은 비가 내렸고, 뉴 멕시코, 오클라호마, 텍사스 등에서는 4인치 이상의 비가 내렸다. 그 밖의 지역에서는 2인치 미만의 비가 내렸다. 동부의 절반이 넘는 지역에서 기온이 평년에 비해 높은 날씨를 보인 가운데 뉴 잉글랜드와 남동부 등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3°F 이상 높은 날씨를 보였다. 로키산맥 일대와 남서부에서는 평년에 비해 서늘한 날씨를 유지했다.

## □ 세계 기후 현황(9/24~9/30)

■ 유럽: 동부에서는 맑은 날씨를 회복했고, 서부와 북부에서는 비가 몇 차례 찾아왔다. 러시아 서부에 넓게 자리한 고기압이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발칸반도 북부와 중부 일대에서는 맑은 날씨를 회복했는데, 이 덕분에 지난주 내렸던 비로 중단되었던 여름작물의 수확작업과 겨울작물의 파종작업이 재개되었다. 폴란드 남부와 서부에서는 3~2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, 발칸반도 남부에서도 10~75mm 내외의 비가 내려 여름작물의 수확작업이 중단되었다. 프랑스와 영국, 독일 등은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주 후반에 5~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.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졌다. 이베리아 반도 일대에서는 9월 말부터 10월 초 즈음부터 계절적인 영향으로 기온이 선선해지고 비가 시작되는데 현재까지 비는 내리지 않고 있다.

■ 구소련(서부): 러시아 북서부에서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 초반에는 맑은 가운데 선선한 날씨를 보였다. 날씨의 도움으로 여름작물의 수확작업과 겨울밀 파종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. 우크라이나 동부 및 남부, 러시아 남서부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고 있다. 우크라이나 중부와 서부에서는 1~25mm 내외의 비가 내리면서 대두의 수확작업에 차질이 생겼다.

■ 동아시아: 중국 북동부에서는 밤 동안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. Heilongjiang, Jilin 등에서는 밤동안 기온이 영하 2°C까지 내려가고 있으며, 막바지 수확작업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. 양쯔강 일대에서는 50~15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, 이번 비로 농작업이 일부 중단되기도 했지만 겨울작물 파종 전 충분한 수분을 토양에 공급해 주었다. 그 밖의 지역에서는 25mm 미만의 비가 내린 가운데 여름작물의 수확작업이 진행 중이다.

■ 호주: 서호주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10~2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. 기온도 평년에 비해 2~3°C 정도 낮았는데, 이번 비는 밀의 수확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. 호주 남부와 빅토리아에서는 맑은 날씨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밀의 수확량이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지만, 그밖의 겨울작물들의 생육상황은 양호한 편이다. 퀸즐랜드와 뉴 사우스 웨일즈 등의 밀 재배지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는 날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농업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. 이들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4~8°C 정도 높았고, 낮 최고기온은 30°C 중반까지 오르내리고 있다.

■ 아르헨티나: 서부와 북동부에서는 맑은 날씨를 회복했다. La Pampa 북동부에서부터 Chaco 남동부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25mm 이상의 비가 내렸고, 일부 지역에서는 50mm



이상의 비가 쏟아지기도 했다. Parana 강 하류의 Buenos Aires 북부 일대에서는 지난 9월부터 계속해서 평년보다 많은 강우량을 보이고 있다. 중부의 La Pampa, Buenos Aires, Cordoba, Santa Fe, Entre Rio 등에서는 기온이 평년보다 3°C 정도 높았고, 북부 일대에서는 주 후반 차가운 고기압이 이동해 오기 전까지 낮 최고기온이 30°C 중반까지 오르내렸다. 주 후반으로 가면서 La Pampa, Buenos Aires 남부 및 Cordoba 등에서는 기온이 평년보다 5°C 정도 낮은 날씨를 보였다.

■ 브라질: 중부와 남부의 Rio Grande do Sul, Minas Gerais, 중서부의 Mato Grosso, Goias, Mato Grosso do Sul 등에서는 10~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. Sao Paulo, Minas Gerais 남부 등 사탕수수과 해바라기 재배지역 일대에서도 비가 내렸다. 중부와 북동부 내륙지역에서도 비가 내리면서 더위를 식혀주었다. 하지만, Mato Grosso 동부, Tocantins, Maranhao 남부 등에서는 아직까지 비가 내리지 않고 있으며, 이들 지역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40°C까지 오르는 날씨가 한주동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